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 첫발

- 중소기업 협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상생모델 본격 추진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원·하청 및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 '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노사발전재단은 '21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제공

올해 처음 도입된 공동컨설팅은 인력·조직 여건상 개별 기업 단위로는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업종·지역·원하청 등 공동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1일 심사를 통해 올해 첫 공동컨설팅 지원사업장 4개소*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장은 서비스 운영 인력과 퇴직 예정 대상자 수가 적어 그동안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기업이다.

* 공동컨설팅 사업장: ▲ (업종) (주)안산교통, 신원운수 ▲ (원·하청) (의)백송의료재단, (주)한국에스웨이

특히 기존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컨설팅에 100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컨설팅은 약 12주간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운영계획 수립과 파일럿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 운영 모델을 마련하게 된다.

재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나아가 공동 운영 사례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공동컨설팅은 인력·조직 여건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100인 미만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게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유사 업종 또는 기업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노사발전재단 기업고용지원팀 | 책임자 | 팀장 | 박근우 (02-6021-1153) |
| | | 담당자 | 과장 | 김수정 (02-6021-1157) |

